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 입니다

www.ksm.or.kr

디자인 및 인쇄 : 마디컴미디어센터 02-488-3002 http://madicom.co.kr

Annual Report 2015

2015 사업보고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 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Korean Sharing Movement

041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Tel. 02-734-7070 / Fax. 02-734-8770 / ksmseoul@ksm.or.kr / www.ksm.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Korean Sharing Movement

세계는 하나! 그럼 북한은요?

유치원 다니는 딸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북한이 어디야? 아프리카보다 멀어?”

달나라도 갈 수 있는 시대에
딸 아이에게 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는 하나라고 가르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보면
딸 아이의 머릿속에 북한은
유독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어디가 더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을 돕자는 이야기가 뜬금없게 들리던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쌀 한 톨이 없어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6대 종단과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시작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제 민족의 화해와 평화, 공존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04 • 발간사
- 05 • 2015 사업평가
- 08 • 인도지원과 평화의 발자취
- 10 • 연도별 방북자 및 물자지원
- 12 • 2015 활동일지
- 14 • 대북지원사업
- 15 •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
- 16 • 평화교육사업
- 19 • 고려인지원사업
- 20 • 헌교과서 수거사업
- 22 • 중국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 26 • 대북지원 국제회의
- 28 • 대외협력사업
- 29 • 정책연구사업
- 30 •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31 •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32 • 미국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33 • 사업결산
- 34 • 함께하는 사람들
- 35 • 후원자 명단
- 38 • 후원자 인터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협의지위 NGO 자격을 부여 받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입니다.**

인도지원 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 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 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2015년 사업보고서를 발간하며

2015년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6년에도 평화와 나눔을 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에 변함없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였기에 그 어느 때와 달리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여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였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난 1년은 당국 간 대화 제의로 시작하여 당국 간 회담 결렬로 끝이 났습니다. 특히 2016년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 중단은 70년간 답습되고 있는 남북 간의 신뢰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은 대북지원이 시작된 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 간 정치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인도주의의 기본적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지난 몇 년간의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8.25 남북 고위급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중단된 민간교류가 일부 진행되는 짧은 기간동안,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원칙의 강조보다 실질적인 당국회담과 민간교류가 더 기본임을 경험하였습니다. 상호불신의 관계에서 원칙의 강조는 마음의 장벽으로 작용하지만, 대화와 교류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는 경험을 말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만으로 한반도의 분단 해소와 평화 구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인도적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에도 우리의 대북지원 활동은 여전히 활로를 열지 못하였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의 정상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여전히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이어 올 해에도 우리 단체는 북한 내 지원지역을 방문하지 못하였으며 대북지원 규모 또한 5.24 조치가 시행되고 남북관계가 극으로 치달았던 2010년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해였습니다. 다만 BaB 캠페인을 통한 북한 어린이 지원은 해외본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활동을 보다 확장

시켜 나갔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운영하였고, 평화축구의 국내 확산을 위한 코치 연수도 진행했습니다. 해외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 도서관을 짓고, 한글도서를 보내고, 여러 교육·문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헌 교과서 수거활동도 5년차를 맞아 학교의 성원과 학생들의 참여로 인한 안정적인 모금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 열린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단순히 회의로 끝나지 않고,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2015년도 사업보고서(Annual Report)'를 발간하면서 지난 한 해 이렇저러한 핑계로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보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더 노력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 보고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솔직한 기록이자 애정 어린 비판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만 스무 살이 되는 해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평화와 나눔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일은 스무 살 성인이 되는 우리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여전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과 북의 상호협력과 평화공존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동포와 해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들을 씬 없이 전개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경도되지 않고 그저 평화와 나눔 정신에 공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정성과 창립정신만을 활동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부디 올해에는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며 후원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5년 사업 평가와 우리의 지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

지난해 11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의 부제입니다. 대북지원 20년을 맞아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해에 개최한 국제회의의 부제를 이렇게 단 것은 한반도에 평화가 더욱 절실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도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새해 벽두의 남북관계는 평화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남북관계 속에서 강력한 대북제재와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평화보다는 전쟁 쪽에 더 가까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백성들의 삶이 안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북쪽 주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최근 외신은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부족 국가' 중 하나로 재지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식량 농업기구(FAO)는 “북한은 곡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부족한 식량의 양이 더 늘었지만 확보한 양은 오히려 줄어 현재 올해 부족한 식량의 96%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평화가 절실한 지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존재와 그 역할이 오히려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전년도의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고민과 지향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2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속에 담긴 고민에 기초해 지난 20년을 평가하고 향후 20년의 모습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아래에 서술하는 사업 내용 하나하나에 평화를 담으려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고민을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북지원 사업

1억6,847만5천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2015년 북한에

지원한 물자 총액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했던 1996년 북한에 지원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1996년 창립 이후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지원 통계는 20년 전으로 거꾸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지원의 내용도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보건의료와 농업/축산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의 대북지원 사업이 90년대 상황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 많은 민간단체들이 추진했던 개발지원 방식의 사업이 모두 중단되었으며 매우 단순한 형태의 물자 지원만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이지만 2015년 초 대북지원의 분위기는 오히려 기대가 높았습니다. 북측이 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연속해서 발표하는 등 무엇인가 변화의 기미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북측의 새로운 발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대북협력 사업을 고민하고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2015년 3월, 중국 심양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후속 접촉 및 현장 조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2015년 연말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도 북측과 협의가 되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원 손길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2015년 한 해, 밥(BaB) 캠페인으로 우리가 부르는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은 여전히 지속돼, 총 15회의 물자 전달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한국 국적자의 북한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미 동포를 통한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5년 4차례 방북하면서 강원도 원산시와 문천시에 위치한 학원들과 인민병원에 생필품과 의약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재외동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은 2015년 한 해가 내실을 더욱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족학교에 네모상자(네가 꿈꾸는 모든 것을 상상해 봐! 자유롭게) 도서관을 꾸리는 일과 한글도서 보내기,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운영 연수 등 3가지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사이의 빈틈을 채우는 데 고민이 집중됐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총 4개 학교에 네모상자 도서관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국내에서 모아진 약 2만권의 한글 도서가 중국 30여개 학교에 전달됐습니다. 2015년 7월, 6명의 조선족학교 선생님이 한국을 방문, 도서관 운영 연수에 참여했으며 11월에는 한국의 도서관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을 방문,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학교의 도서관 지원사업은 2015년까지 5년째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더욱 많고 다양한 한글 도서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고 그 내용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도서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후원자들의 중국 조선족학교 현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연간 한두 차례 진행했던 현지 방문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이 중국의 조선족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역시 재외동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볼고그라드 고려인 지원사업도 계속되었습니다. 러시아 남부지역인 볼고그라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동안 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지역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고려인 축제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할린 지역의 고려인들에 대해서는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교육 사업



최근 몇 년간 평화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3년 전 평화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평화교육에 힘을 쏟은 이유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선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을 5기째 진행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4년엔 부장 1인을, 2015년엔 부장 2인을 영국에서 진행된 F4P Int'l 코치 양성 프로그램에 직접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2015년에는

평화축구 코치 트레이닝이 아시아지역 최초로 국내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브라이튼대학교의 코치진과 학생 10명이 국내를 방문한 가운데 교사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50여 명이 8월의 폭염 속에서 평화축구 코치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이 코치 트레이닝에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어린이평화축구교실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은 물론 경기도와 대구 등 지역 단위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온라인 홍보 기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중국 조선족학교에 다니는 재중동포 고등학생들과 교류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해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도 지난해 세 번째로 진행됐습니다.

국제협력과 대북지원 국제회의



2015년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지 20년이 된 해였습니다. 대북지원 20년을 기념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국내에 더욱 알리고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와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등과 공동으로 주최해 온 '대북지원 국제회의'의 규모를 더욱 키워 개최했습니다. 이전까지 태국 방콕과 중국 북경 등에서 하루에 진행했던 국제회의를 2015년에는 국내에서 사흘간 개최했습니다.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의 부제는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1일차인 공개회의와 2일차인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인사들은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3일째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대북지원이 결국 한반도 평화와 밀접히 관련돼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NGO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국제기구와 정부, 지자체, 전문가, NGO가 함께 하는 이러한 논의의 장이 매우 필요하며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연구사업/정책포럼·토론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사무처 내 정책 논의 기구로 평화나눔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평화나눔센터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여러 사업에 대해 정책적인 자문과 정책포럼/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책포럼과 토론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한반도 평화와 대북지원의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우리의 지향을 우리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옹호 활동이기도 합니다. 2015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두 번의 정책포럼과 세 번의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다른 기관과 연대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북 인도지원을 포함해서 교류협력과 국제관계 등 더욱 넓은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조직, 그 논의의 지평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매해 1월 1일 발표되는 북한 신년사 분석 토론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북한 신년사설 분석을 주제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는 이제 2017년이면 10 회째를 맞습니다.

헌 교과서 수거 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11년 서울시교육청, 2012년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서울과 경기도지역 각급 학교들과 공동으로 헌 교과서 수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이 다 배우고 폐기하는 헌 교과서들을 학기 말에 모아내고 이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수거, 폐지업체에 판매해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북한 어린이급식지원 사업,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 한글문화학교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도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서울과 경기지역의 초중고 1,871개교가 동참하고 헌 교과서 수거량도 3,000톤에 달합니다. 헌 교과서 수거 사업 6년차를 맞은 201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금까지의 사업 내용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교육청과 연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온 내용을 자세하게 알리는 것을 바탕으로 교육청 및 각급 학교들과 더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3월 발간한 '2014년 사업보고서'에 담긴 '2014년 사업 평가와 우리의 지향'이라는 글에는 '참여·봉사 사업'과 관련

해, 2015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내용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2015년을 돌이켜 보면 실제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처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 경기지역 중·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한 면으로 소개합니다. 한글 도서의 수집과 해외 발송에 경기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봉사 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러한 봉사 활동을 통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평중학교 네모상자 동아리의 소개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우리만이 아닌 이웃, 그리고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14살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언제 어디서나 뿌듯함을 느끼게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2016년 6월 21일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스무 살이 되는 날입니다. 스무 살 성인이 되는 이날, 축하의 꽃다발을 서로 나누어야 하지만 주변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 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기본은 어디일까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 기본이 여전히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단 70년의 응어리 속에서 남과 북의 당국이 서로를 배척하고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이라도 만드는 게 우리 단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비전위원회를 구성, 지난 20년을 평가하고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그림을 그리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쩌면 올해 내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주변 상황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있는 8,000만 겨레의 열망과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가 서로를 이룰 수 있는 가교(架橋)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서는 북쪽 이야기를, 북에서는 남쪽 이야기를 더욱 많이 하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스무 살 성인이 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도지원과 평화의 발자취

남과 북, 해외에까지 닿았습니다

2015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평화, 남북통합 NGO로서 남과 북,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향한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농촌현대화사업

- 평안북도 씨감자 지원
- 평안남도 대동군 : 농기계수리공장
- 평안남도 강서군 : 농기계공장
- 화령 씨감자 지원
- 양강도 농기계지원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 평양시 룡성구역 : 벼농사 시범재배농장
- 평양시 시동구역 : 농기계수리공장
- 평양시 강안군 장교리 : 협동농장 벼농사공동재배 농촌현대화사업
- 황해남도 신천군 : 농기계수리공장
- 개성시 : 개성시 전역
- 개성시 개풍군 : 개풍양묘장



축산협력사업

- 평양시 삼석구역 : 장수원알육중계장
- 평양시 상원군 : 축산사범농장
- 평양시 강안군 장교리 : 양돈장 육묘온실
- 평안남도 남포시 : 남포 - 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 황해북도 봉산군 : C.C.C 젖염소축종장



어린이급식사업

- 함경북도 온성군 : 45개 유치원, 1개 고아원 3,245명
- 양강도 해산 : 유치원, 탁아소
- 평안북도 염주군 : 염주군양생원
- 평안북도 동림군 : 동림중등학교원
- 평안북도 룡천군 : 룡천군유아원
- 평안북도 신의주 : 신의주유아원 · 애육원
- 평안북도 삭주군 : 삭주군아부모학원
- 평안남도 남포시 : 유치원, 탁아소



중국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 길림성 매하구시 : 매하구소학교
- 길림성 장백현 : 장백소학교
- 길림성 서란시 : 서란소학교
- 길림성 장춘시 : 룡원구소학교
- 길림성 화룡시 : 신동소학교
- 길림성 룡정시 : 북안소학교
- 길림성 훈춘시 : 훈춘제1실험소학교
- 흑룡강성 오상시 : 오상중학교, 오상소학교
- 흑룡강성 영안시 : 영안중학교
- 흑룡강성 상지시 : 상지중학교
- 동북3성 조선족학교 : 한글도서관 사서교사연수



긴급구호사업

- 함경북도 회령 : 3개 유치원 889명
- 양강도 : 유치원 탁아소 5,800명
- 평안북도 신의주 : 전역
- 개성시 및 황해도 6개군 : 전역
- 나진선봉 : 유치원 탁아소



병원현대화사업

- 평양시 동대원구역 : 조선적십자종합병원
- 평안남도 남포시 : 남포산원
- 황해북도 사리원 : 인민병원
- 평안남도 온천군 : 온천군병원



제약공장 지원사업

- 평양시 낙랑구역 : 정성의학종합센터 (정성수액약품 · 알약공장)



IT교육사업

- 중국단둥 : 하나소프트 교육원



생활지원사업

- 나진선봉 : 의류지원
- 평양시 만경대구역 : 식품기공공장



말라리아 방역사업

- 황해남북도 : 말라리아 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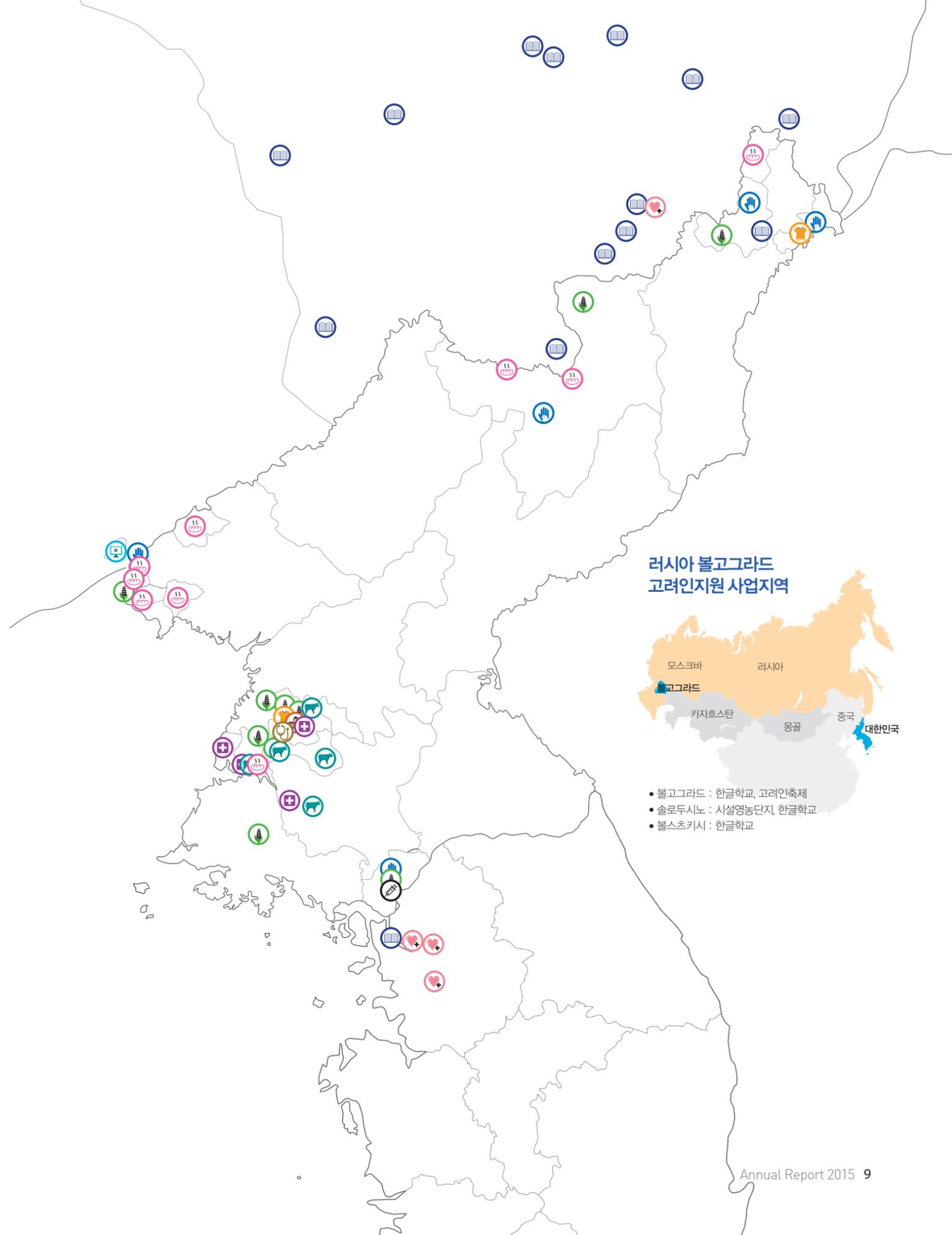
교육지원사업

- 평양시 중구역 : 금성제1중학교



평화교육사업

- 서울 :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 경기도 수원시 :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 서울 : 평화축구 코치트레이닝
- 중국 연길 :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지원 사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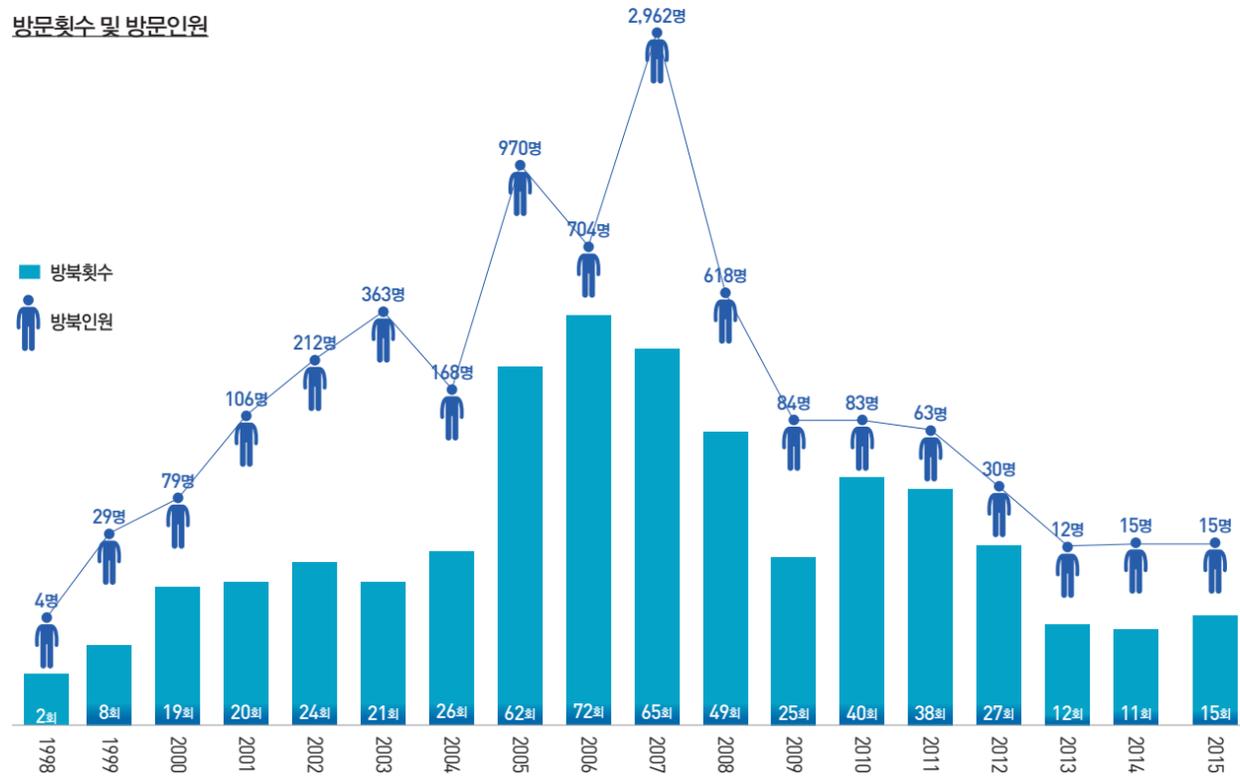
- 볼고그라드 : 한글학교, 고려인축제
- 솔로두시노 : 시설영농단지, 한글학교
- 볼스츠키시 : 한글학교

연도별 방북자 및 물자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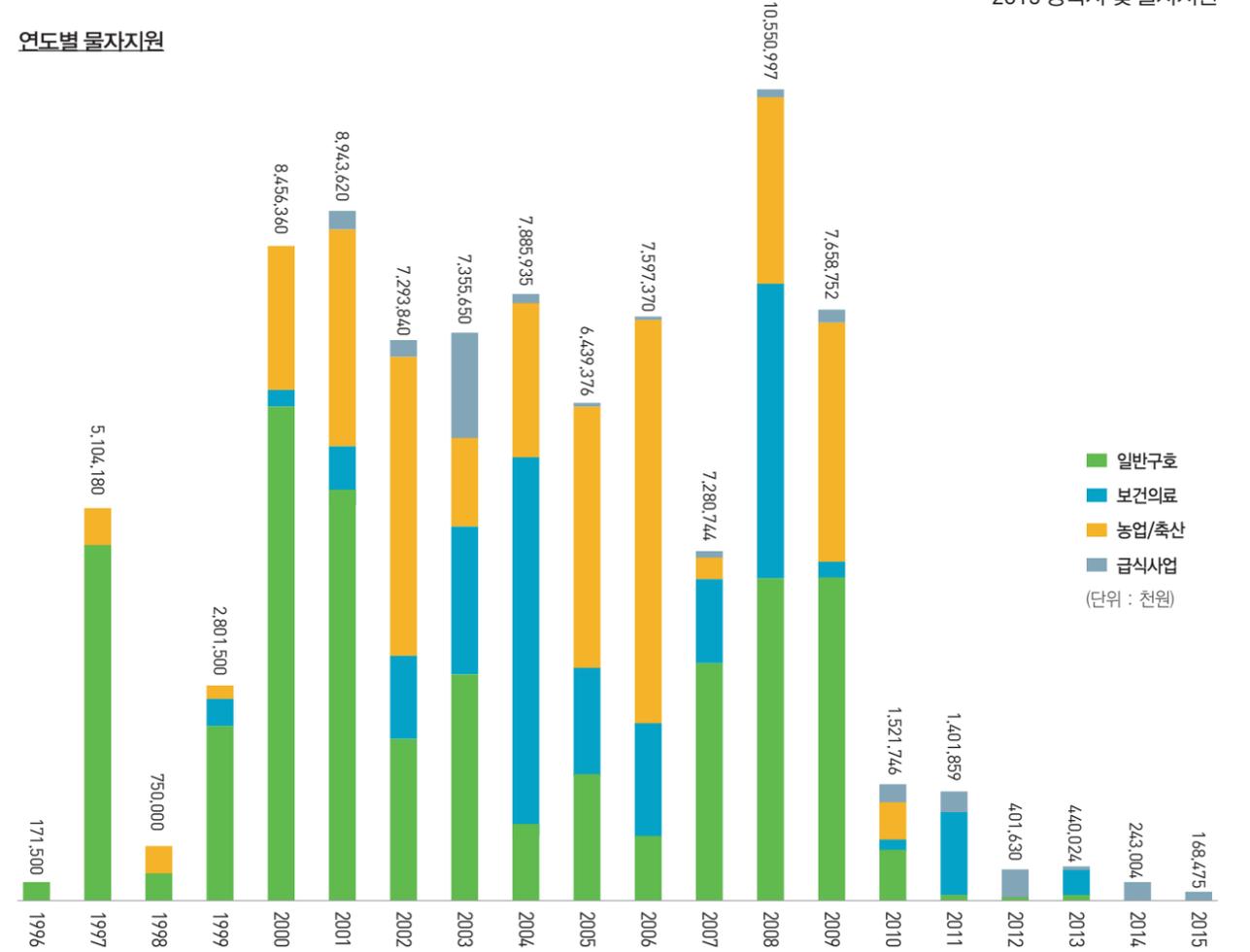
수많은 남과 북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남과 북을 잇는 마중물의 역할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문횟수 및 방문인원



연도별 물자지원



방북자 현황

연도	방문횟수(회)	연인원(명)	방문지역별(횟수/연인원)						
			평양	남포	신의주(룡천)	개성	금강산	기타	
1998	2	4	1회 2명		1회 2명				
1999	8	29	2회 13명	4회 10명	2회 6명				
2000	19	79	8회 48명	8회 20명	3회 11명				
2001	20	106	14회 85명	5회 17명	1회 4명				
2002	24	212	20회 203명	3회 7명			1회 2명 (자강도 만포)		
2003	21	363	19회 356명	2회 7명					
2004	26	168	18회 136명	4회 15명	1회 7명	1회 3명	2회 7명		
2005	62	970	37회 811명	6회 13명	2회 18명	17회 130명			
2006	72	704	60회 647명		2회 2명	8회 48명	2회 7명		
2007	65	2,962	38회 471명		3회 3명	24회 2,488명			
2008	49	618	13회 217명	2회 12명	4회 4명	22회 377명	1회 1명	7회 7명 (함북은성)	
2009	25	84	9회 59명		4회 4명	2회 11명		10회 10명 (함북은성)	
2010	40	83	2회 21명		1회 4명	5회 26명		32회 32명 (함북은성/회령)	
2011	38	63	2회 6명			28회 31명		28회 28명 (함북은성)	
2012	27	30				3회 6명		24회 24명 (양강도 해산 함북 은성)	
2013	12	12						12회 12명 (양강도 해산 함북 은성)	
2014	11	15				1회 5명		10회 10명 (평남 안주, 강원도 원산, 양강도 해산)	
2015	15	15						15회 15명 (함북은성, 강원도 원산, 양강도 해산, 라진선봉)	
합계	536	6,517	243회 3,075명	34회 101명	24회 65명	90회 3,124명	5회 15명	139회 140명	

※ 2007년까지는 한국국적 방문자만 집계.
 ※ 2008년부터는 북한 어린이 지원 해외동포들의 신의주, 룡천, 함북 은성 지역 등에 방문한 횟수를 포함.
 ※ 해외동포의 평안남도 안주, 강원도 원산, 양강도 해산과 함북 은성 방문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한국 국적자의 개성 이외 지역에 대한 방북은 전무함.

물자지원 현황

연도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취약계층)	계
1996	171,500	-	-	-	171,500
1997	4,612,180	-	492,000	-	5,104,180
1998	330,000	-	420,000	-	750,000
1999	2,290,000	376,500	135,000	-	2,801,500
2000	6,382,900	202,190	1,871,270	-	8,456,360
2001	5,344,390	556,000	2,823,230	220,000	8,943,620
2002	2,108,750	1,090,530	3,928,850	165,710	7,293,840
2003	2,891,390	1,952,370	1,209,710	1,302,180	7,355,650
2004	1,007,250	4,726,480	2,074,080	78,125	7,885,935
2005	1,640,380	1,397,730	3,390,790	10,476	6,439,376
2006	828,920	1,499,140	5,264,130	5,180	7,597,370
2007	3,076,948	1,090,922	3,068,778	44,096	7,280,744
2008	4,181,110	3,875,382	2,427,461	67,044	10,550,997
2009	4,163,576	229,980	3,150,606	114,590	7,658,752
2010	666,312	114,917	528,114	212,403	1,521,746
2011	47,000	1,120,368	-	234,491	1,401,859
2012	30,453	-	-	371,177	401,630
2013	11,236	36,872	-	391,916	440,024
2014	-	-	-	243,004	243,004
2015	-	-	-	168,475	168,475
합계	39,784,295	18,269,381	30,784,019	3,628,867	92,466,562

(단위 : 천원)

2015년 활동일지

2015년, 치열하게 고민하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남과 북의 분위기가 썩어 붙었던 2015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화적 공존의 과제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2015년 활동을 통해 2016년 나아갈 길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월



- 0102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
- 0102 신년모임
- 0103~06 경기도 모금블런티어 중국 방문 활동
- 0109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120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년 정기총회

2월



- 0204~17 초등학교 '현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 활동
- 0204 2월 상임위원회
- 021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214 F4P(Football for Peace) 국제본부 미팅
- 0216 '2014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자료집 발간
- 0217~2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225 제75차 공동대표 회의
- 0227 광복 70주년 · 6.15공동선언 15주년 시민토론회

3월



- 0304 북민화협 사업협의(중국 심양)
- 030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센터 이전 개소식
- 0319~2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325 3월 상임위원회
- 0328~0404 미국 달라스본부 대표단 방북
- 0330 '2014년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발간

7월



- 0702 조선족학교 한글 도서 지원(11,206권)
- 0703 7월 상임위원회
- 0716~0904 초등학교 '현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 활동
- 0718~0806 제3기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KYPI) 프로그램
- 0725~28 중국 조선족학교 사서교사 국내 초청 연구
- 0731~0803 청소년 중국 평화투어

8월



- 080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807~10 '스포츠클를 통한 평화교육(Football for Peace)' 한국 코치트레이닝 캠프
- 0811 부산본부, 러시아 사할린 합동주모비 제막식 및 추모관 기공식 개최 (사할린)
- 0822 제2회 '네모상자를 품다' 개최

9월



- 0902 9월 상임위원회
- 0905 북민협원탁토론
- 0914 제62회 정책포럼 (체육교류로 열어가는 남북 화해와 평화)
- 0917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921~25 영국 코치트레이닝 캠프 참가

4월



- 0401 '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15주년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발족식
- 0403~04 평화활동가대회
- 0407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지자체 회의
- 041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411~25 제4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5월



- 0501 서울시교육청 한민족어린이 지원기금 전달식
- 0508 흑룡강성 념안중학교 도서관(아홉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중국 념안시)
- 0513 비룡소출판사 조선족학교 지원 도서 1,000권 기증
- 0516 독일 작센주마틴 돌리히(Martin Dulig) 부총리 간담회
- 0520 흑룡강성 오상조선족학교 도서관 (열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중국 오상시)
- 052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0523 1차 청소년 DMZ 통일평화기행
- 0529~31 통일박람회

6월



- 0603 6월 상임위원회
- 0608 익산농기계, 대북지원용 농기계 기탁식
- 0611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 건립' 후원회 개최
- 0617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62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629 제76차 공동대표 회의
- 0630 권장생 어린이문화재단, 조선족학교 지원 도서 3,000권 기증
- 0630 61회 정책포럼(북한 가뭄실태와 식량상황)

10월



- 1009 중국 길림성 훈춘시 제1조선족소학교 도서관 준공식(열한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 1010 제12회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 (볼고그라드 음악극장)
- 1012~15 BaB 캠페인 후원자 중국 방문 프로그램
- 1013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1015 <북민협> 실무대표단 개성방문
- 1017~31 제5기 어린이평화축구 프로그램
- 1024 조선족학교 한글도서 지원(9,802권)
- 1025 2차 청소년DMZ 통일평화기행
- 1027 제77차 공동대표 회의

11월



- 1103~05 2015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 1106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 민찬
- 1106 경기도 광주 초월중학교 통일평화교육
- 1109~25 고등학교 '현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 활동
- 1113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조선족중학교 도서관 개관식(열두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 1117 창립 19주년 기념 후원의 밤
- 1118~22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현지 연구
- 1128 11월 상임위원회
- 1129 회원들과 함께하는 DMZ 평화투어

12월



- 1209~12 '2015년 동북아산림협력 국제회의' 참가 (중국 연길)
- 121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전남본부 후원의 밤
- 1220 12월 상임위원회
- 1228~30 중학교 '현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 활동
- 1229 BaB 캠페인 물자 지원
- 1231 (주)웨스턴테크닉 성금전달

화해와 협력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2015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사업은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1998년 이래 지원사업장 방문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2013년에 이어 그 두 번째 해로 기록되었으니 말입니다. 지원규모는 1996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부터 전면 중단된 남북협력사업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순수 민간단체로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남북협력사업 재개를 위한 노력 ●●●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진행된 남북협력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은 3월 2일 중국 심양에서 경기도 관계자와 함께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중단된 남북협력사업의 재개와 신규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휴전선 인근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 대한 방역사업을 재개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황해남북도 일대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긴장관계 속에서 후속 접촉 및 현장조사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사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12월 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 바닥을 치다 ●●●

2015년 한 해 대북지원 규모는 단체 창립 첫 해인 1996년의 그것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지원의 규모가 가장 컸던 2008년의 63분의 1이며, 5.24조치가 시행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던 2010년의 10분의 1입니다. 단체 관계자의 방북 역시 2013년에 이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한 해였습니다. 바닥을 쳤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인도주의 운동임과 동시에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대북지원을 통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긴장상태의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를 다시 싹트게 하는 일은 한반도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모쪼록 2016년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 중단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 협의 (중국 심양, 2015.3.2)

몸과 마음의 균형있는 성장, 나눔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한 우리들의 나눔은 2015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 'BaB이 희망이다'는 북녘 어린이들의 한 끼 급식을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후원자님의 작은 정성이 모여 갈등과 긴장으로 얼룩진 선을 넘습니다. ”

건강한 성장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

UNOCHA와 서울대 통일학센터에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자강도 지역 어린이들의 만성영양불량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UN 등 국제기구들이 1998~2012년 동안 북한 현지에서 수행한 북한 어린이 영양상태 조사는 어린이들의 영양장애 비율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평양과 그 외 외곽지역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 아이들의 영양은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한끼의 식사, 북녘 어린이들에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해외동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함경북도, 양강도, 강원도 내의 아이들에게 한 끼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는 총 15회의 급식물자가 북녘에 닿았으며, 월 평균 7.5톤의 국수를 비롯한 급식물자가 아이들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또한 겨울철 입을 의류와 학용품도 전달했습니다. 2015년은 중간에 몇 번의 부침을 겪기도 했습니다. 두만강을 잇는 다리의 보수공사로 물자전달이 잠시 중단되었고, 북한의 사정으로 지원이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녘의 아이들과 그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은 비록 느리지만 아이들을 향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물자의 정기적,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북녘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후원자 지원현장방문(2015.10.12)



달라스 우리민족 국수물자 전달



함께 뛰고 달리며 평화의 가치를 배우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5년 한 해 신뢰, 존중, 책임감, 다양성 등의 평화 원칙을 목표로 평화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체육, 교류, 탐방, 강의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참가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평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치로 보는 평화프로그램

354명

신뢰, 존중, 책임, 공평과 포용의 가치를 목표로 한 평화교육에 354명이 참여했습니다.



18회



체육, 교류, 탐방, 강의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총 18회 진행했습니다.

93%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화 가치를 이해하고 인식이 개선됐다고 밝힌 참가자들이 93%에 이르렀습니다.



신뢰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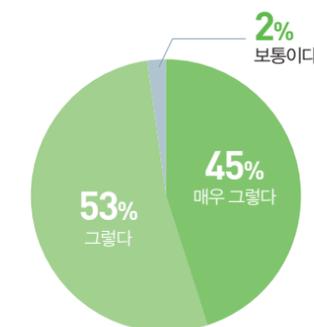


아일랜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클레어 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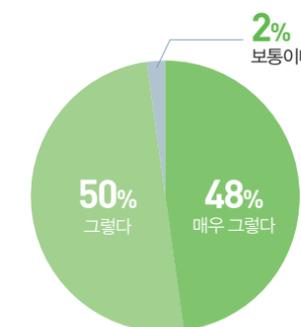
2015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트레이닝 ●●●

2015년에는 평화축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아시아지역 최초로 평화축구 코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위해 영어로 된 매뉴얼을 한글로 번역하여 교재로 활용했습니다. 뜨거운 8월, 4일간의 일정동안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평화축구를 배우고 실습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의 클레어 리아 코치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화축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평화축구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정체성과 주인의식, 비판적 사고력 등을 기를 수 있게 한다”면서 “아이들이 평화축구를 통해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평화에 대해 사고하는 법을 배운다면 갈등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1 이 프로그램이 추후 활동현장에서 평화교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Q2 내년에 같은 프로그램이 열린다면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학부모의견

Q 평화축구교실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평화라는 단어가 생소했는데 조금은 이해가 간다. 이기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 학부모 채혜정 님 -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고, 경쟁이 아닌 서로 소통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만족스러웠다”

- 학부모 김영순 님 -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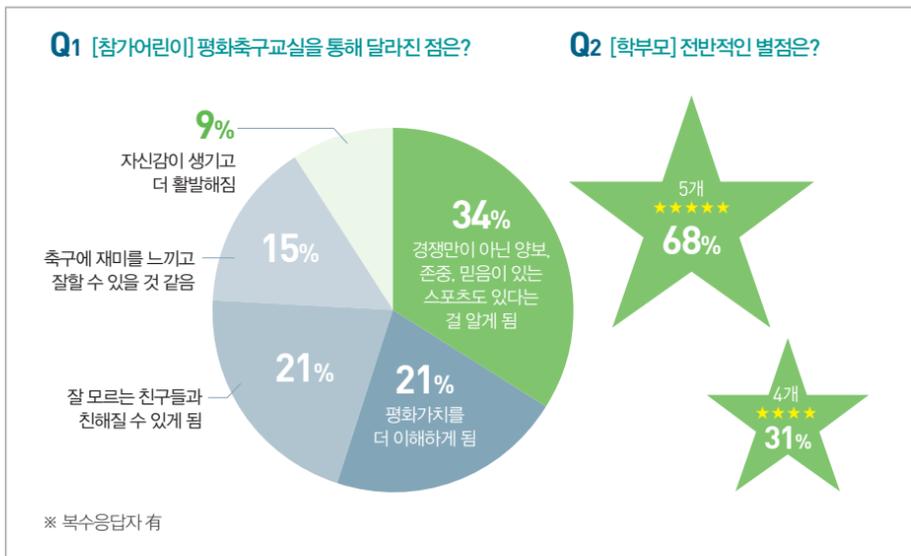
5기째를 마친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은 어린이들이 축구를 통해 즐기면서 평화의 가치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에는 서울·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포함한 50여 명의 아이들, 8명의 실무진과 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평화축구교실을 꾸렸습니다. 특히, 여름에 진행된 평화축구 코치 트레이닝 프로그램 수료자가 5기 평화축구교실 자원활동 코치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간의 선순환도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에도 평화학 전공자이자 영국축구협회 인증 축구코치 자격증을 보유한 댄 거전 코치와 함께 평화 가치를 체득하는 즐거운 축구교실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 신뢰게임



모두가 함께 축구하는 모습



평화강좌 - 전쟁&평화 사진전



중국평화투어 - 대성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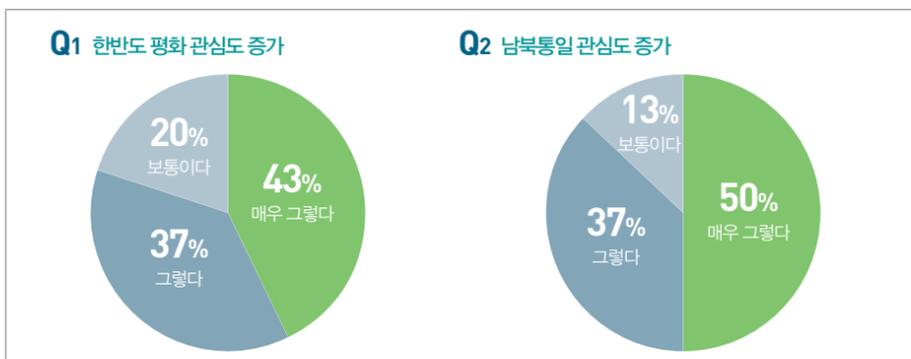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 (Korean Youth Peace Initiative)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는 한국 고등학생 16명, 재중동포 고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8월 4주일간 실시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몸을 움직여 표현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이론과 활동을 접목한 청소년 평화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중접경지역을 방문한 평화투어는 타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의 삶을 마주하고 분단의 현실에 대해 참가 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안준현(동성고등학교 2년)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였던 것이다.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화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정체성 회복을 향한 고려인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고려인 동포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볼고그라드 동포를 위한 기초생활 긴급지원과 의료지원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간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 시설농업지원사업, 지역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고려인 축제 등이 진행됐습니다. 2015년은 고려인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강화와 문화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열 두해를 맞이한 한글문화학교 「미리내」 ●●●

10월 10일 '미리내'에서는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열 두해를 맞았으며, 약 600여 명의 러시아 각 민족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여 춤, 노래, 연주, 전통놀이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튿날인 11일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평화를 위한 시'라는 주제로 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한글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한국어 실력을 뽐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전통문화공연에 항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행사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 딸들에게 우리 고향의 문화를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베틀라나리 (볼고그라드 고려인 주민)

한국어 교사들의 역량을 키웁니다 ●●●

또한 11월 말에는 5일간 볼고그라드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수법 현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영담 상임공동대표와 한국의 전문가가 함께 현지를 방문하여, 교사들의 한국어 수준 및 교수법 향상을 위해 집중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볼고그라드 고려인들의 오랜 후원자인 신경력 (주)신생공업 회장은 이들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한복 및 예복, 사물놀이 악기 등을 후원하였습니다.



한국문화축제



볼고그라드 한국어대회

헌 교과서 날개를 달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기부받은 헌 교과서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한 끼 급식, 중국 조선족학교에 새 도서관을,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들에게 한글교재와 악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 교과서가 날개를 달아 희망으로 전해졌습니다.”

헌 교과서 수거 사업의 힘 ●●●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은 학생들이 공부한 책을 기부받아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을 향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교육청, 교총과 공동으로 시작한 헌 교과서 수거사업이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각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헌 교과서를 모으며 사업의 뿌리를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쓰던 헌 교과서와 자습서를 가져와서 기부하는 학생들, 학생들에게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학교에서 수거를 조직해주는 선생님들, 직접 현장에 나가 수거를 도와주시는 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나눔과 따뜻한 마음이 헌 교과서 수거 사업의 큰 힘입니다.

무려 코끼리 500마리 무게라니! ●●●

2015년 한해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총 1,871여 개 학교가 참가했습니다. 총 3,038톤이 수거되었습니다. 무려 코끼리 500마리 무게에 달합니다. 혹자는 한 권의 헌 교과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아진 헌 교과서는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되고, 한글학교가 되고, 한 끼 급식이 됩니다. 헌 교과서 한 권이 모여 덩치 큰 코끼리처럼 성큼성큼 걸어나갑니다. 나눔은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제 힘을 발휘합니다.

헌 교과서
수거사업 참여 학교

1,871여 개



헌 교과서 수거량 3,038,080 kg



* 헌 교과서가 날개를 달기까지



◀ 헌 교과서 수거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헌 교과서 수거사업은 교육청과 교총이 함께 합니다.



▲ 활동가들이 수거시 사용될 포대를 포장하여 각 학교에 발송합니다.



▲ 수거차량이 학교를 돌며 포대에 모아둔 헌 교과서를 수거해 갑니다.



▶ 헌 교과서 수거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중국조선족학교 도서관 내부입니다. 헌 교과서 수거로 조성된 기금으로 한민족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Report 06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책을 나누는 것은 미래를 나누는 것이다

“ 중국에 사는 조선족 동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네모상자 도서관을 4개 조선족학교에 개관하였습니다. ‘네가 꿈꾸는 모든 것을 상상해봐 자유롭게’라는 이름에서 따온 네모상자 도서관. 이곳에서 조선족 동포 학생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이고, 한글도서를 통해 더 멋진 미래를 꿈 꿉니다. ”

<네모상자 도서관> 설치 ●●●

4개 조선족학교에 <네모상자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학교	소재지	학생수	개관일	지원순서
녕안시조선족중학교	흑룡강성 녕안시	313명	2015년 5월	8호
오상시조선족소학교	흑룡강성 오상시	220명	2015년 5월	9호
훈춘시제1실험소학교	연변자치주 훈춘시	1100명	2015년 10월	10호
상지시조선족중학교	흑룡강성 상지시	262명	2015년 11월	11호



훈춘제1실험소학교 도서관 개관식



추옥단(오상시조선족소학교 교장)

우리 학생들이 날마다 책을 읽으며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꾸준한 독서습관으로 저마다의 미래를 발견하며 나아가 행복한 삶의 토대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는 곳,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TALK



리지민(오상시조선족소학교 학생대표)

전에 우리는 날마다 공부가 끝나기만 하면 곧장 굴레 벗은 망아지처럼 활개치며 놀기만 하였고 스마트폰에 눈을 빼앗겨 금쪽같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덧없이 흘러 보낸 지난날과 작별할 것입니다. 좋은 책과 친구하고 아담한 <네모상자 도서관>의 단골이 되려고 합니다. 풍당 책속으로 빠져들어 책속에서 성장하고 세상을 넓혀가려 합니다.

TALK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



오상시조선족소학교 도서관개관식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

총 46명의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참여하는 연수, 재미있는 연수를 목표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1회씩 총 2회 교사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도서관 담당교사 한국 초청연수

느티나무도서관과 협력해서 진행한 초청연수는 2015년 7월25일(토)~28일(화)까지 3박4일간 열렸고, 조선족교사 6명이 참가했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 평화도서관, 밤토실도서관 등 지역도서관을 참관하고 자료분류와 수집, 그림책 고르기, 책 읽어주기 등을 이해하며 동화작가와와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서천초등학교와 구성중학교 등 학교도서관을 방문하여 학교도서관 사서의 역할,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강혜련(서란시조선족소학교)

여러 도서관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도서관 문화에 대해 많이 실감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곳이라는 말이 인상에 남습니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제가 할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TALK

동북3성 조선족학교 도서관 운영교육 연수

3회째 접어드는 중국 방문연수는 2015년 11월18일부터 21일까지 길림성 장춘시 룡원구조선족소학교에서 3박4일간 <꽃피는 학교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룡원구소학교는 2014년에 네모상자도서관을 개관한 곳입니다. 이번 연수는 동북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30개 학교에서 40명의 교사들이 참여했고, 한국의 도서관전문가,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모임인 학도넷(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참여교육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윤희(경민대학교 독서문화컨텐츠학과 교수), 김경숙(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사무처장), 이대건(고창 책마을 해리 촌장), 이영주(서울연가초등학교 사서교사) 등 4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김해월(훈춘시제1실험소학교)

항상 아이들이 주인인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들을 제지시키기로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책을 관리할 줄만 알고 도서관을 운영할 줄 모르는 도서관 담당이었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TALK



리금란(연길 6.1유치원)

도서관리에 이렇게 깊은 학문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사서'라는 단어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도서 분류와 정리를 실제로 해보면서 사서선생님들의 노고도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TALK



안태련(오상시조선족중학교)

이번 연수에서 한 아름의 수확을 받아 안고 돌아갑니다. 강사 선생님들의 도서관 운영 이념, 좋은 책 선정하는 방법, 책 놀이 활동, 나만의 책 만들기, 독서모임 조직, 책 모듬 활동 등을 배웠으며 더불어 우리 학교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출판할 수 기회와 개동이네놀이타라는 어린이 잡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얻어서 기쁩니다.

TALK

한글도서 지원 ●●●

2만권의 도서를 30개 조선족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도서모으기와 분류를 위해 8개학교 (네모상자동아리) 학생들과 학부모자원봉사 등 850여 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주었습니다.

도서모으기 활동

수원시 내 지역도서관에서 1만여 권,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에서 3,000권 그리고 비룡소출판사에서 1,000권의 한글도서를 기증해주었습니다. 2014년에 이어 경기도 내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가정에 있는 책들을 모아서 기증해주고 있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 6월 메르스 여파로 도서모집과 분류활동이 일시 중단되어 지원수량이 줄어든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서분류와 학교봉사동아리 <네모상자동아리>

도서관과 학교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는 수원에 위치한 도서분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거칩니다. 낱거나 내용이 부실한 도서를 골라내고,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으로 분류하여 개별 박스포장합니다. 도서분류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 내 <네모상자동아리> 봉사학생들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모상자동아리>는 한글도서지원과 조선족학교를 돕는 경기도 내 학교 봉사 동아리이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6개교에 결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한글도서 모으기, 모금활동, 도서분류 자원봉사이며 조선족학교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축제 '네모상자를 품다'는 2015년 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한글도서 배분

분류를 마친 한글도서는 중국 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위치한 도서배분센터로 전달됩니다. 이 곳에서 30개 조선족학교에 도서를 배분했습니다. 2015년 학교별로 500여 권씩 배분하고 도서관 리모델링을 지원한 학교에는 2,000권씩 지원하였습니다. 조선족학교 교사들이 배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도서를 고른 후에 직접 필요한 책을 골라가도록 하고 있고, 일부 거리가 먼 학교는 택배로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에서 기증한 어린이 도서는 30개 학교에 각각 100권씩 전달되었습니다.



또박또박 한글 공부해요

경기지역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소개

경기지역 네모상자 자율동아리 현황(2015년 12월 현재)

학교명	인원
대평중학교	16명
천천중학교	5명
잠원중학교	45명
영덕중학교	33명
매탄고등학교	22명
동백중, 상갈중	3가족 10명



잠원중



잠원중



영덕중

봉사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 한글도서의 수집과 해외 발송에는 경기도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봉사 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 몇 명이 모여 도서 분류와 포장 작업에 참여하던 학생들은 이제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네모상자'라는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한글도서 수집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수원에 있는 분류센터를 방문, “모아진 도서를 알콜로 소독하고 십진표에 의해 도서분류를 하고 박스에 포장을 하고 그 박스 안에 있는 책 목록을 작성하고 트럭에 싣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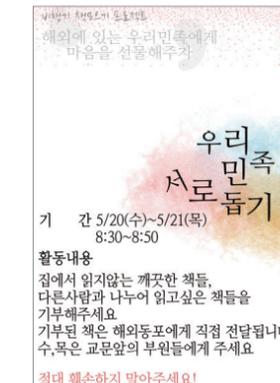
천천중 1학년생

책을 분류하며 판단하고, 읽어봤던 책에 대해서 자연히 대화를 나누고 읽어주고 하게 되요. 기본적으로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봉사활동 시간 채우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시간 생각은 안하고 다른 친구들을 돕는 것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우리만이 아닌 이웃, 그리고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14살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 대평중학교 네모상자 동아리 소개 글에서



영덕중



한글 도서 수집을 위해 대평중 네모상자 동아리 학생들이 교내 복도에 부착한 포스터

경기도지역의 고교 연합 동아리 WATW가 주도해서 준비한 행사, 「제2회 네모상자를 품다」가 2015년 8월 수원시 영덕중학교에서 열렸다. WATW(We Are The World)는 서울 국제학교와 외대부고, 세마고 등 고등학생들의 연합 동아리이다.

분단 70년, 대북지원 20년.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 서울서 개최

“ 대북지원은 한반도 평화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 발을 딛고 있는 남한의 NGO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내, 국제 연대를 통해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허물고 우호적인 대북지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대북지원,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 ●●●

2015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제7회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는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 그리고 1995년 북한의 지원 호소를 기점으로 남한 및 국제 인도 주의 사회가 대북지원을 시작할지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회의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등 기존 공동주최 단체와 더불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제주도가 주최 단체로 참여하였고, 통일부가 후원하였습니다.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2015년 회의는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더불어, 20여년 간의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지 평가하고 향후 대북지원의 모습을 그려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고양시 컨텍스에서 열린 11월 3일 공개회의에는 국내외 초청자를 비롯해 25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개회의는 대북지원 20년의 성과와 과제, 향후 북한 개발협력으로의 전환, 그리고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세션으로 이어졌습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토론을 이끌었으며, 플로어에서도 진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 가지 점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간의 대북지원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 가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북지원, 한국 NGO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

11월 4일에는 여의도에 위치한 글래드호텔에서 비공개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UN, NGO, 적십자, 지자체 관계자, 연구자, 주한 외국대사관, 정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에는 주요 사업분야에 대한 경험 공유와 대북지원에 있어 한국 지자체의 역할이 논의되었습니다. 오후에는 1)지원 단체 간 협력과 조정, 2)북한의 변화와 향후 개발협력사업, 3)포괄적 평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법이라는 3개 주제로 나눠 분과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11월 5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비공개회의의 참가자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부 간 대화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민간교류협력사업을 모색할 것, 그리고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에 있어 현재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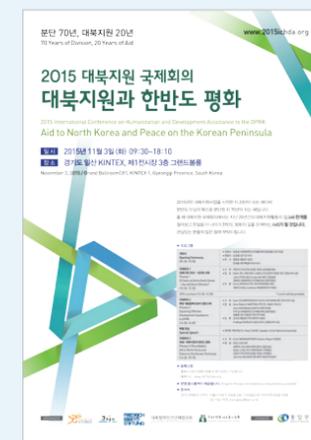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향후 대북지원, 변화된 환경을 읽으며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대북지원 환경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물론, 북한에는 여전히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다 규모 있는 개발협력력을 고민할 때입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정치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며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허물고 보다 우호적인 대북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

- 11월 3일 : 공개회의(일산 컨텍스)
 - 개회식
 - 전체회의 1 : 대북지원 20년 - 성과와 과제
 - 전체회의 2 : 북한 개발협력으로의 전환 모색
 - 특별 연설 : 정의화 국회의장
 - 전체회의 3 :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
- 11월 4일: 비공개회의(여의도 글래드호텔)
 - 전체회의 4 : 대북지원 활동과 최근 동향
 - 전체회의 5 : 북한 개발협력에 있어 한국 지자체의 역할
 - 분과회의 : 분과1 - 지원 단체 간 협력과 조정
 - 분과2 - 북한의 변화와 향후 개발협력사업
 - 분과3 - 포괄적 평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법
 - 종합토론 : 공동선언문 입안
- 11월 5일 : 기자회견(여의도 글래드호텔)
 -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대북인도적지원과 평화정착을 위한 연대의 발걸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55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 및 주창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한반도 평화를 고민하는 단체들과의 연대활동도 이어나갔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대표협의체로 55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5년 북민협 상임위 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북민협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1월 20일 '대북 인도적 지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월 15일에는 북민협 단체실무자들이 개성을 방문하여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민간차원의 개발협력사업과 평양방문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지원 20년을 맞은 2015년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9월 5일 (시민 원탁토론 '평화로운 내일을 요리하라')를 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11월 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에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대북지원 20주년 백서> 발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2016년 초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4월 3일 시민평화포럼이 주최한 <평화·통일활동가대회>에 공동주관 단체로 참여했습니다. '평화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활동가들은 평화를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로간의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통일운동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연대사업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시	내용	비고
1월 20일	「대북 인도적 지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	
3월 24일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성명서」 발표	
4월 3일-4일	'평화·통일활동가 대회' 참여	시민평화포럼 주최
9월 1일	「8.25 합의에 따른 북민협 성명서」 발표	
9월 5일	시민 원탁토론 '평화로운 내일을 요리하라' 개최	
9월 18일	'대북지원 20년 평가와 전망' 간담회 개최	
10월 15일	북민협 개성 면담	대북협력사업 협의
11월 3일-5일	<분단 70년, 대북지원 20년>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	공동주최 참여

대중과 소통하며 대북지원의 활로를 모색하다

“정책포럼과 토론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한반도 평화와 대북지원의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2015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두 번의 정책포럼과 세 번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다 ●●●

2015년 정책포럼은 시기적절한 주제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했던 상반기에는 가뭄 피해가 북한 식량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평양에서 국제 유소년축구대회가 개최된 9월에는 체육 교류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주최 토론회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대 통일학연구원과 함께 8년째 진행하고 있는 '북한 신년사 토론회'는 이미 북한연구자와 대북지원 관계자들에게 신년을 시작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포럼 등과 함께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을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처 성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깊은 고민을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2월부터 다섯 차례 진행한 내부간담회에서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 전망, 개발협력 이론과 실제, 북한 인력 교육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7월 한달 동안은 평화교육 컨텐츠 스테디를 진행하며, 외부의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내용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더 깊이 고민하며 변화의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

2015년 한 해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단기 과제들에 비해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고민은 깊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향후 5년, 아니 10년 후 대북지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는 남북 통합의 상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묻고, 우리의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더 많은 이들이 변화의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자 합니다.

2015년 정책포럼	2015년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회(서울) : 6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100년만의 가뭄 실태, 그리고 북한 식량 상황" -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 62회(서울) : 9월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체육교류로 열어가는 화해와 평화" -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2일 : '신년사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주최) 2월 27일 :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평화포럼, 한겨레 등 공동주최) 11월 25일 : '우리민족 대북지원 분야별 평가'



시민원탁토론
'평화로운 내일을 노래하라'



공동주최 토론회



내부간담회

창립 15주년, 새롭게 도약한 한 해

“ (사)우리민족은 2015년 창립 15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며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과 대북지원사업 패러다임 변화 속 우리민족의 역할을 고민하고, 재외동포 사업 확대, 통일교육 사업을 통한 지역통일 인재양성 활동, 대중회원 사업을 통한 지역 내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등 한반도를 넘어 한민족의 화합과 교류를 향한 힘찬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

재외동포사업-한민족, 책 그리고 친구 조선족민족학교 교육교류협력사업 ●●●

3월 요녕성 25개 조선족민족학교에 광주학생·시민들이 모아준 2만권의 한글 기증도서를 지원했습니다. 9월에는 한글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심양시 조선족제6중학교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10월에는 한글날을 기념하고 민족교류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는 제2회 '한민족 책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같은 달 중국 동북3성 조선족민족학교 교사 20명을 광주로 초청해 심리상담, 독서교육, 혁신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민족교육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썼습니다. 또한, 광주와 심양 양 지역 간에 초·중학교 3개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1월 9월에 상호교차방문을 진행하여 교육·문화·언어 등 민족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통일교육사업-또래공감, 세대공감 평화통일 생각하기 DMZ현장체험 ●●●

DMZ통일캠프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청소년 통일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총 3차례 진행된 캠프를 통해 200여명의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이 DMZ지역을 방문하고,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족과 함께하는 DMZ통일캠프를 개최하여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세대간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노력했으며, 통일교육의 대상과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대중·회원사업-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함께 걷다 ●●●

2015년 회원가족 대상으로 조·중점경지역과 항일유적지, 백두산을 탐방하고 돌아오는 백두산가족통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 우리역사문화탐방과 더불어 통일외식 고취,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5.18행사, 6.15행사 등 연대사업을 통해 일반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려 했습니다. 한편, 큰 스포츠 이벤트인 '광주하게U대회'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남북화해와 교류를 확대하려 했으나 북한의 불참이 확정되며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전남지역 어린이 DMZ 통일캠프



중국 조선족민족학교 지원 한글도서 보내기

사할린 동포를 위한 목직한 발걸음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한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사할린 동포들에게 고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 건립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모금 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 건립 TV 캠페인 광고 ●●●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SBS/KNN TV 광고를 통해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 건립'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태백산맥', '아리랑'의 조정래 작가가 TV 광고에 출연해주셨습니다. 이번 TV 캠페인 광고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할린 강제 징용 희생자 추념식 개최 ●●●

2015년 6월 16일 사할린에서 '일제 제국주의 강점기 사할린 강제 징용 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제 징용 되었다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한 많은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한인 희생자들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 남아있는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2016년부터 '사할린 동포와 함께하는 역사 기행' 진행 ●●●

2015년 7월 15일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6년부터 진행하는 '사할린 동포와 함께하는 역사 기행'과 관련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6년부터 사할린 동포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유적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할린 합동 추모비 제막식 및 위령제, 추모관 기공식 개최 ●●●

2015년 8월 11일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역에서 일제 강점기 사할린 강제 징용 한인 희생자 합동 추모비 제막식과 위령제를 가졌습니다. 사할린 한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가 처음으로 세워졌고 이들을 위로하는 위령제에 많은 현지 동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한인 희생자 중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안치하기 위한 '추모관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 건립 TV 캠페인 광고



사할린 동포와 함께하는 역사 기행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역에 세워진 '합동 추모비'



생필품으로 전하는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

“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는 2015년 4차례 방북하면서 강원도 원산시와 문천시에 위치한 고아 학원들과 인민병원을 중심으로 애족의 마음으로 힘써 모금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서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 물자 협조를 받으며 민족 사랑과 평화통일의 목표를 이루고자 서로 힘을 모았습니다. ”

달라스 동포 사회의 따뜻한 마음 ●●●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달라스 동포 사회와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들과 재단 그리고 Baylor Hospitals의 후원을 받아 2015년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 강원도 인민병원 지원품목

- 국수 2톤
- 안과부에 안과서적, 안과기구 전구, 배터리, 안약 등
- 양수기(1대), 태양 전기판(10개), 트랙터 다이아(6짝), 발전기(1대), 조정기(1대) 등

• 강원도 내 학교와 학원 지원품목

- 냉동기 8대
- 양말(370켤레)
- 선수용 축구공(200개)
- 제초기, 재봉틀, 다리미 등

학생들과 만남에서 싹트는 교감 ●●●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5년부터 매년 2회 이상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교육후원기금과 양해문을 맺고, 그에 따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전달하고, 물자를 받은 기관들을 방문하여 교류하는 등 한 민족으로서 사랑과 화해, 그리고 평화통일을 향한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특별히 강원도 원산 및 문천지역 학교 축구팀과 배구팀에 운동용품과 생필품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 학생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국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5.10.06
문천중등학교 축구공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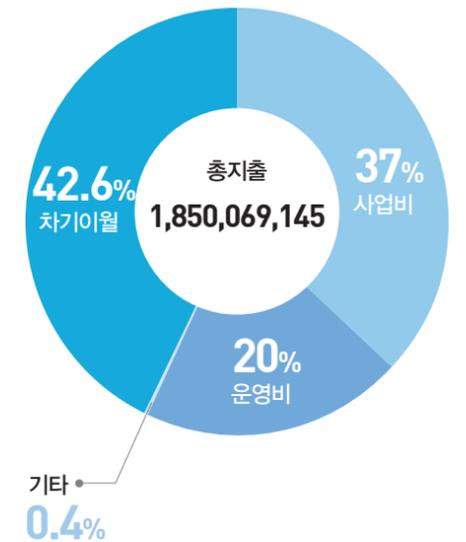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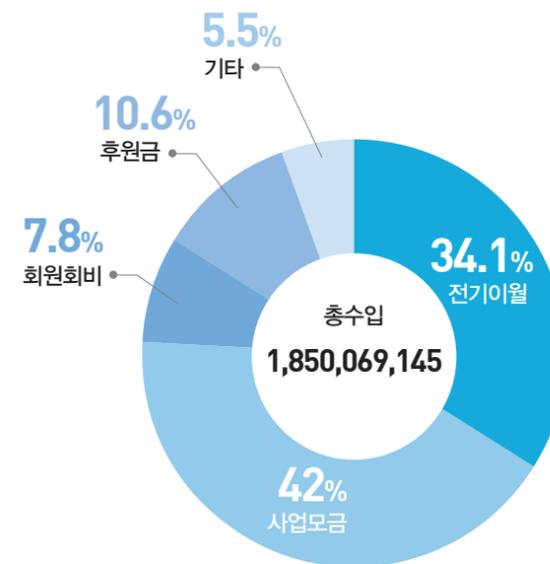
원산애육원 방문

사업결산

(단위 : 원)

수 입	
전기이월	631,221,226
모금	776,332,860
대북지원사업	22,125,000
북한어린이지원사업	209,427,174
재외동포지원사업	41,433,400
헌교과서수거사업	376,889,600
정책 * 평화교육사업	126,457,686
운영비 모금	340,565,894
회원회비	144,661,894
후원금	195,904,000
기타수입	101,949,165
합 계	1,850,069,145

지 출	
사업비	684,085,401
대북지원사업비	30,653,260
북한어린이지원사업비	195,041,202
재외동포지원사업비	169,336,994
헌교과서수거사업비	148,099,307
정책 * 평화교육사업비	140,954,638
운영비	370,452,571
기타지출	8,224,249
차기이월	787,306,924
합 계	1,850,069,145





남북나눔운동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북의료협력재단 남상돈 남세현 남영호 남우주 남장현 노관숙 노민화 노승일
 노윤미 노인선 노정환 노제승 노춘봉 노태완 노혜경 노호균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느티나무도서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댄거전(Dan Gudgeon) 도재영 동방의밝은빛 동북아평화연대
 동양물산기업(주) 동학민족통일회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라병금 라병화 류덕용 류새날 류새벽 류수빈 류연석
 류영준 류용성 류이근 류재호 류정숙 류주현 류현선 류화자 류희웅 마경화 마명락 마윤종 목주승 문경숙 문경순
 문대은 문미영 문상규 문석규 문성권 문성권 문성욱 문수정 문용식 문주성 문찬기 문태환 민경기 민순옥 민족화
 해협력법국민협의회 민향석 민현주 박강호 박경국 박경서 박경아 박경호 박계용 박계윤 박귀순 박귀현 박금희
 박기호 박남용 박동실 박동우 박동호 박만승 박우영 박문식 박미경 박미라 박미란 박미숙 박민옥 박병무 박병우
 박병진 박복영 박상욱 박상일 박상일 박상희 박석양 박선숙 박선오 박성기 박성은 박성찬 박소희 박순 박순성
 박애스더 박연규 박영근 박요순 박용권 박용수 박용천 박원규 박유중 박윤선 박윤훈 박은영 박은주 박의용
 박인곤 박인숙 박인숙 박인숙 박재규 박재목 박재완 박재호 박정란 박정숙 박정식 박정우 박정자 박정화 박종균
 박종근 박종록 박종원 박종원 박종윤 박종의 박종호 박종환 박주영 박주현 박주현 박지연 박지웅 박지호 박진우
 박청수 박태신 박표균 박현철 박형준 박형준 박형중 박혜영 박홍숙 박홍열 박희순 박희윤 반재철 반치범 방석환
 방재만 방철호 방현섭 배강우 배경이 배기안 배덕호 배소영 배수진 배수현 배정민 배향란 백낙서 백낙청 백도인
 백정은 변선애 변은경 변진석 봉미란 사랑의체널 산과들농수산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서기원 서동화 서명호 서민원
 서민희 서순희 서연우 서연우 서옥주 서용원 서장춘 서정숙 서정인 서지현 서철원 서혜경 서희정 석상근
 석지홍/석지훈 석지훈 석찬희 선봉규 선영숙 선정아 설인혜 성낙준 성도경 성열찬 성완호 성현주 세마포어솔루션
 세형자원 소장섭 소진영 손경임 손경환 손광우 손덕현 손삼국 손서정 손승호 손여준 손영주 손정아 손주현
 손진우 손진책 손훈 송경민 송기무 송두현 송명욱 송민규 송상용 송상윤 송성도 송용석 송운학 송은숙 송은지
 송인규 송재영 송재천 송재현 송정배 송지섭 송춘섭 송형규 송형욱 수명산교회 신경서 신경은 신규호 신기호
 신대현 신동석 신민수 신범선 신삼복 신상문 신수억 신순남 신은결 신정식 신진현 신진호 신호 심경란 심나리
 심말선 심승섭 심재규 심재원 심재정 심현용 심현희 안규식 안동희 안명일 임침빈 안명화 안민식 안상화 안서윤
 안성주 안세봉 안약천 안영숙 안윤석 안재형 안정덕 안정식 안정훈 안종금 안종출 안준상 안현성 안현숙 안효진
 양관승 양근성 양기주 양문수 양미아 양순환 양우성 양운정 양인보 양재원 양진선 양한식 양해준 양현석 양효정
 양희석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어용철 엄기철 엄용수 엄주일 에이티엔에프글로벌(주) 에치엔컴(주) 염규현
 염동현 염철 영의료재단 오경윤 오계환 오동일 오명섭 오문택 오선연 오성수 오세호 오소영 오수경 오수형
 오승현 오이경 오준희 오태정 오현광 오형석 오형윤 오혜근 오혜선 오화선 오훈정 옥용호 온강민 왕정찬 우광택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 우리홈쇼핑 우성호 우희중 원동오 원순자 원종남 원형복 원혜영 원효진
 월드비전 웨스턴테크닉 위은량 유근춘 유근호 유남길 유덕조 유명량 유명희 유미경 유방용 유병천 유성식 유성치
 유승주 유승희 유연미 유원희 유윤숙 유재욱 유재진 유재호 유종석 유종희 유지수 유진상 유피에스시스템(주)
 유하경 유현숙 육근범 윤광운 윤기홍 윤미화 윤병현 윤서영 윤석현 윤성진 윤성진 윤승림 윤시원 윤영석 윤여두
 윤연수 윤영복 윤영선 윤용근 윤자영 윤재희 윤정현 윤정희 윤종식 윤종원 윤주인 윤지열 윤지인 윤지현 윤지현
 윤창섭 윤혜정 이갑산 이강기 이강찬 이강희 이경래 이경미 이경재 이경희 이광렬 이광훈 이규 이규문 이규설
 이근태 이근행 이기언 이기호 이기화 이기훈 이남재 이남철 이남희 이대호 이동민 이동석 이동섭 이동수 이동영
 이동원 이동현 이리나 이명석 이명수 이명천 이명환 이목희 이무철 이미래 이민성 이민영 이범재 이병국 이병도
 이병동 이병재 이상복 이상업 이상업 이상재 이상준 이상춘 이상학 이상호 이상훈 이석기 이석용 이선 이선규
 이선장 이선호 이선호 이성기 이성민 이성수 이성주 이성철 이성호 이세은 이수구 이수구 이수덕 이수연 이수정

이숙영 이숙자 이숙희 이승곤 이승영 이승우 이승은 이승한 이승현 이승환 이상재 이연하 이연주 이엽
 이영내 이영동 이영숙 이영주 이영주 이영철 이영호 이영환 이영훈 이영휘 이옥순 이완수 이용균 이용범 이용선
 이용암 이용연 이용찬 이우영 이운식 이운정 이운학 이원민 이원배 이원욱 이윤희 이윤관 이윤리 이은혜 이응세
 이인덕 이인수 이인제 이일선 이일양 이일영 이장원 이재명 이재술 이재원 이재원 이재하 이재학 이정미 이정세
 이정수 이정숙 이정식 이정업 이정업 이정주 이정철 이정훈 이정희 이재현 이종문 이종민 이종민 이종석 이종섭
 이종성 이종안 이종주 이종학 이종호 이주철 이주형 이준동 이지립 이지영 이지용 이지운 이지원 이지은 이지하
 이진권 이진아 이진탁 이찬우 이찬용 이창용 이창재 이재경 이천권 이창희 이춘삼 이춘목 이치수 이태주 이필원
 이학수 이한결 이한솔 이한택 이항 이항미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우 이현재 이현정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해경 이해란 이해옥 이해옥 이해원 이해정 이홍우 이홍준 이효식 이홍우 이희성 이희원 이희종 이희택 임갑택
 임광호 임금숙 임갑실 임동권 임동선 임동혁 임문희 임병수 임병철 임세진 임소라 임완민 임원빈 임인기 임장원
 임재민 임재에 임지훈 임창영 임춘수 임현직 임형주 장길수 장라미아 장명봉 장문호 장민환 장범식 장보형
 장사익 장선영 장수필 장순천 장영준 장용성 장용훈 장원석 장유경 장윤진 장은하 장재영 장주혜 장지식 장준용
 장현재 장형수 장환빈 전경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재 전기철 전기환 전달수 전미란 전범권 전병태 전병희
 전상용 전성 전성관 전영길 전영일 전용운 전일순 전정수 전정희 전중수 전진원 전체남 전향미 전혜린 전훈
 정경순 정경옥 정계현 정광수 정광식 정근 정근영 정기운 정란아 정명준 정미선 정미혜 정민 정범진 정병현
 정상모 정상원 정석만 정성경 정성호 정성희 정수근 정수조 정수준 정수진 정수현 정수희 정연실(송경평) 정영웅
 정연정 정연준 정영근 정영자 정영철 정욱식 정원섭 정윤영 정의화 정인성 정인준 정재민 정재욱 정재현 정정욱
 정정태 정종원 정중렬 정지영 정지원 정지원 정지은 정지혜 정진영 정찬광 정창수 정태은 정한성 정해문 정해열
 정현근 정현백 정현영 정현철 정혜숙 정혜인 정홍상 정희범 정희인 정후진 정홍귀 조경기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조기봉/세운 조대엽 조두연 조만용 조민지 조봉현 조석희 조선아 조성숙 조성탁 조성호 조성희 조승훈 조승희
 조영상 조영석 조영식 조용원 조용진 조우영 조윤 조윤곤 조은미 조은희 조은원 조재현 조재호 조정순 조정아
 조주원 조준석 조지현 조진영 조창식 조태현 조한민 조현/조윤 조현영 조현호 조형준 (주)초록식품 (주)개성상사
 주관수 (주)디에스인터내셔널 주송순 (주)에스엔그린텍 주재열 주현기 주혜영 주희욱 지선경 지준호 지태석 진관스님
 진양숙 진운수 차규화 차대운 차성수 차창혁 차현애 차형철 참여연대 채병철 채보미 채송이 채송화 채우혁
 천경배 천도교중앙총부 천정배 초록우산 최경미 최경인 최규원 최기수 최기천 최남건 최병희 최사라 최석기
 최성범 최성수 최성원 최세문 최수진 최숙희 최순옥 최승호 최승호 최석덕 최아람 최양욱 최영림 최영희 최완규
 최우정 최유복 최윤식 최윤실 최윤표 최은정 최의찬 최재근 최재문 최재원 최재천 최정숙 최정애 최정환 최중철
 최준수 최준혁 최지원 최진욱 최진원 최철영 최태자 최태희 최필선 최현주 최희승 최희은 추진해 탁병섭 탁중녀
 평화삼천 푸른지구 푸른초장교회 하승창 학교법인 이우학원 한강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제이티에스 한국종교연합 한국화학연구원 한기백 한길석 한나영 한녹희 한다솔 한다현 한덕섭
 한덕섭 한덕희 한동기 한동학 한동휘 한동희 한두희 한상균 한상만 한서정 한성희 한승엽 한에린 한원택 한윤구
 한은혜 한인숙 한인숙 한정화 한준구 한지섭 한진옥 한창균 한창수 한창현 한하니 합기문 함께나누는 세상 함용운
 허귀석 허민석 허설 허원중 허인웅 허정 허정윤 허준웅 현대로지스틱스(주) 현대명덕판매대리점 현윤식 현윤실
 현윤애 현종스님 현종윤 현지연 호영진 홍규표 홍기호 홍면기 홍미옥 홍상운 홍석 홍석조 홍성각 홍성건 홍성근
 홍성복 홍숙희 홍원식 홍윤정 홍제표 홍준석 홍진표 홍창영 홍현선 화신농건 환경정의시민연대 환성스님 환성스님
 황계연 황금철 황대철 황명필 황성주 황소리 황영성 황영자 황의중 황인선 황장권 황재성 황재용 황재택 황중철
 황지중 황창규 황현택



후원자 인터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항상 응원합니다

2015년에도 많은 분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업보고서의 마무리는 14년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후원해주셨고, 자원봉사활동까지 도맡아주신 고명진 회원님을 인터뷰했습니다.



고명진 후원자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명진이라고 합니다. 2002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온 가족이 2002년부터 후원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민족을 알게 되었고, 자원봉사 활동까지 이어진 계기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형편과 관계없이 항상 주위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어머니의 뜻이 좋다 생각하고, 더욱이 우리 민족을 돕는다는 단체의 취지가 제게 와 닿았습니다. 때문에 후원하고 싶고 기회가 되는 데로 활동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Q.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활동 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민족 활동 중 BaB 캠페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 교과서 수거사업도 좋고요. 아쉬운 건 우리민족을 더 알리지 못한 점이에요. 저는 회원이라서 이메일진, 소식지 등을 받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깐요. 우리민족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우리민족을 알릴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원과 회원, 회원과 상근활동가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Q. 2016년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주년입니다. 응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거뜬히 해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항상 응원합니다.

평화의 사과나무를 함께 심어주세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소용 없는 짓이라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평화의 사과나무를 심어야겠지요.

사과나무에 거름을 주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후원 안내

- **CMS(자동이체) 후원** : 소식지 후원신청서 작성 발송
-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 CMS(자동이체) 신청, 휴대폰, 신용카드 후원
- **계좌이체 및 지로 후원**
 국민 011-01-2503-703
 농협 386-01-004282
 하나 10101-3849606
 신한 140-002-997113
 우리 111-04-133058
 우체국 010017-01-006718
예금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